



정부,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

오병국 연구원

■ 정부는 ‘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(12/12)’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을 3.7%로 전망함.

-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1년 3.8%를 기록한 뒤 2012년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.7%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 - 2012년 민간소비는 개선되나,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 - 건설투자는 플러스(+)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함.
-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2011년 각각 19.2%, 23.2%에서 2012년 7.4%, 8.4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.
 -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25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.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한국은행 물가목표 상한선인 4.0%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국제원자재가 격 안정, 수요압력완화 등에 따라 3.2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.
- 취업자 증가 수는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28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.

〈표 1〉 2012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

(단위: %, 억 달러, 만 명)

구분	경제 성장률	민간소비 증가율	설비투자 증가율	건설투자 증가율	수출 증가율	수입 증가율	경상 수지	소비자 물가상승률	취업자수
2011년	3.8	2.5	4.3	-5.4	19.2	23.2	250	4.0	40
2012년	3.7	3.1	3.3	2.9	7.4	8.4	160	3.2	28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12/12).

■ 정부는 이러한 경제전망에 맞추어 2012년에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을 정착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함.

- 재정의 60% 내외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함.
-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정부와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고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통로가 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로 장기·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임.
-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.
-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 패스트트랙을 추가 연장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하기로 함.
-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터키·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(FTA) 조기 타결을 추진함.
-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,800여개 행정서비스 수수료 중 원가 이상인 수수료를 낮추고 봉사료 등을 외식가격에 표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임.
-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 4천 명으로 4천 명 늘리고,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 명, 1만 2천 명으로 확대함.
-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54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늘리기로 함.
-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,500만~4,500만 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m^2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·저리·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함.
-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함.
- 5세아 전 계층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누리과정을 3~4세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함.

(연합뉴스, 12/13)